

# 광주시 일곡지구 쓰레기 매립지 환경영향조사

### 감사도 진행... 근린공원 청소년문화의집 다른 부지 검토 악취·가스누출·침출수 관련 등... 주민 설명회 후 처리 논의

광주시가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려다 발견한 북구 일곡지구 근린공원 불법 쓰레기 매립지와 관련해 환경영향조사를 하고 관련 감사도 진행한다. 특히,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광주지역 대규모 택지지구에 대한 쓰레기 불법 매립도 함께 조사하고, 불법 매립에 따른 업체와 관련자에 대한 처벌 등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일곡지구 시립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예정부지 지하 쓰레기

매립지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이르면 이달 안에 북구에 예산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쓰레기 매립지 위에 건립하려던 청소년문화의집은 북구 다른 지역에 건립하기로 하고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

광주시는 터파기가 이뤄진 부분을 원상 복구하고 악취, 가스누출, 침출수 유출 등 환경영향과 주민안전성 등을 조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영향조사 결과가 나오면 주민 설명회를 한 뒤 매립지 처리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일곡지구 주민들도 조만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쓰레기 매립지에 대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주민들은 지난달 27일 회의를 갖고 불법매립 현황 조사와 책임소재 규명, 쓰레기 처리방안 등을 광주시에 요구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말 일곡지구 근린공원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공사를 추진하던 중 지하 4~11m 지점에서 대규모 쓰레기 매립층이 발견되자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지하 4m 지점부터 아래로 6.5~7m까지 쓰레기 4200여t이 매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지난 1996년 북구의회 특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원부지 전체에 매립

된 쓰레기량은 5만~9만t으로 추정됐다.

광주시 검토 결과 매립된 쓰레기는 사업장 불법 폐기물이어서 반출 처리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광주시는 1997년 이전 일곡지구 택지개발 당시 매립된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 일반폐기물)이 청소년문화의집 부지 내에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과거 어떤 경로로 쓰레기가 매립됐는지 여부와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 감사위원회도 조만간 청소년문화의집 관련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광주시, 아트광주19 사업주관 단체 공모

### 30일까지 신청 접수

광주시는 '광주국제미술전람회(아트광주19)'를 운영 할 사업주관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올해는 본전시 부스운영 형태와 관련해 응모단체의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운영을 위해 ▲화랑부스와 작가부스 혼합 운영 ▲화랑부스 중심 운영 ▲기타 운영 방법 중 하나를 응모단체가 선택해 사업제안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사업에는 총 4억5000만원이 지원되며, 광주시에 소재를 둔 등록단체

로 최근 2년간 문화예술 관련 사업 실적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

또 이 요건을 충족하는 1개 법인·단체를 포함한 컨소시엄 형태로도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30일까지 시 문화도시정책관실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광주시는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2월 내 사업주관단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시 공유문화 실천 기업·단체 사업비 지원

### 3개 분야 공모사업 시행

광주시는 공유문화 촉진을 위한 공모 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공모사업은 소통하는 '공유부엌', 공유실업 기업·단체 지정, 공유축진 사업비 지원 등 3개 분야로 진행된다.

소통하는 '공유부엌' 사업은 갈수록 늘어나는 1인 가구의 혼밥, 낮은 건강상태, 사회적 고립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요리전문가의 감수 등 재능공유, 음식 나눔 프로그램 운영, 음식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를 주 내용으로 한다. 시가 지정한 기업이나 단체, 마을공동체 모두 참여할 수 있고 최고 1000만원까지 사업비가 지원된다.

공유문화를 실천하는 기업이나 단체를 공유실업 기업·단체로 지정하고 3년

간 공유 로고 사용, 공유 관련 행사 우선 참여권 등 혜택을 준다. 최근 6개월 이상 공유활동을 한 이력이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법인, 기업,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해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모에 참여한 희망하는 기업·단체·마을공동체는 다음 달 8일까지 광주시 자치행정과(062-613-2651)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2016~2018년 24개의 공유실업 기업·단체를 지정하고 사업비 2억4000만원을 지원했다.

김준영 광주시 자치행정국장은 "민간 각종 자원과 개인의 재능 나눔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공동체가 발전하면서 공유문화가 생활 속에서 더욱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강진미술관 '그리운 금강산 눈 앞에' 16일 강진미술관에 가로 5m, 세로 2m 크기의 안명석 북한공훈미술가의 '금강산 비경' 작품이 내걸렸다. 남쪽 화해 분위기 속에서 열린 이 전시에는 평양미술대를 졸업한 안 작가의 작품이 관람객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 광주시 조례·훈령 등 자치법규 너무 많다

### 6개 광역시 중 최다

### 분석 후 재정비키로

광주시의 자치법규가 전국 6개 광역시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법규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을 말한다. 시는 우선 조례, 규칙이 다른 광역시에 비해 많은 이유를 분석한 뒤 훈령, 예규 등과 함께 재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6개 광역시 평균 자치법규 수는 786개인데 광주시는 900개로 타 광역시에 비해 많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광주시의 자치법규

는 조례 598건, 규칙 140건, 훈령 123건, 예규 39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부산은 827건, 대구는 774건, 인천 830건, 대전 781건, 울산 602건이었다.

시는 관련 법률에 의거한 조례, 규칙, 의원 발의에 의한 조례, 규칙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시 관계자는 "매년 정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광역시보다 지나치게 많은 점에 그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이날 간부회의에서 "과도한 법규는 시민들의 활동이나 사업활동을 규제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면서 "자치법규를 양산하지 말고 현재 있는 자치법규들도 혁신의 관점에서 정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자치법규를 전면 재검토해 여건변화로 실효성이 없거나 중복되는 자치법규는 통폐합 하고, 자치법규들이 양산되거나 남용되지 않고 꼭 필요한 자치법규들이 생산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관련 절차도 보강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시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해 1월말까지 793개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전남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확대

전남도는 올해 쌀 공급 과잉 문제에 대응하고 밭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쌀 생산조정제의 하나다. 논에 벼 대신 콩이나 조사료 등 다른 작물을 심으면 ha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전남지역 계획면적은 1만1661ha로 전국(5만5000ha)의 21% 규모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논 타작물 재배 사업 참여농자와 쌀변동직불금 지급농지 및 2018년 벼 재배 사실이 확인된 농지 등이다. 특히 올해는 최근 3년 동안 1년 이상 경작 사실이 있는 농업인(법인)이 작물을 심지 않을 경우도 휴경으로 인정해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전남도 가격 하락 겨울배추 1만t 산지 폐기

### 평당 4500원, 10a당 135만원 보전

전남도는 가격 약세가 계속되는 겨울배추의 가격 회복을 위해 겨울배추 1만t을 시장 격리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겨울배추 재배 면적은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지난 11월 이후 기상 여건 호조로 생산량은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소비가 부진하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이날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위원회'를 열고 해남 등 주산지 계약 재배 포전을 중심으로 11.1ha 면적의 겨울배추 1만t을 시장 격리키로 결정했다. 시장격리에 따른 보전 금액은 평당 4500원, 10a당 135만원이다. 예산은 도비 2억7000만원을 포함해 주산자인 시·군과 농협이 일정 비율로 부담하게 된다.

전남도는 유관기관·단체와 협조를 통

해 물량 배정 등 사전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오는 25일까지 배추를 시장에 출하하지 못하도록 산지에서 폐기시킬 예정이다.

한편, 전남도는 그동안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으로 가을배추 1392t을 시장 격리했다. 이어 지난 9일 겨울배추도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를 대폭 증액해 현재 6000t을 시장 격리하고 있다.

홍석봉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은 정부의 채소가격안정제사업과 별도로 도 자체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한다"면서 "앞으로 배추 가격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정부차원의 실효적 추가 대책을 건의하는 등 가격안정에 온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선로 걱정없는

# 선착순

# 엘림형 태양발전소 분양

## 2019년 8월~10월 준공예정

### 현금 투자금 회수기간 ▶ 최단 2년 6개월 가능

### 계약금 1천만원 선착순 50개소 접수 중

**‘최소 25년 이상’**  
마르지않게 정성들인 노후 연금식  
**엘림형 태양광발전소**

**태양광 100Kw**

**동식물재배사**  
위탁, 영농(임대)

**년 4,000만원 이상 수익가능**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한국전기공사협회**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